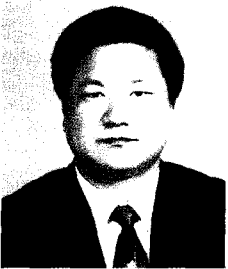


# 때죽나무



△ 때죽나무 꽃



최 명 섭  
임업연구원

늦은 봄이면 흰빛의 작은 종처럼 주렁주렁 피는 꽃들이 봄바람에 흔들려 때죽나무의 상큼한 향기가 퍼지는 산길은 즐겁기만 하다. 최근에 때죽나무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다름 아닌 공해 문제 때문이다. 서울 도심에 있는 남산이나 안산, 비원, 북한산 같은 곳의 숲들이 대기오염과 산성우의 피해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때죽나무 만큼은 왕성하게 잘 자란다. 그래서 때죽나무가 미국자리공처럼 공해의 피해를 알려 주는 지표식물이 된셈이다. 그러나 오염되지 않은 강원도 심신산골에서도 때죽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볼 때 이 나무가 공해지역에서만 잘자라는 것이 아니라 대기오염이나 산성우에 강한 나무로 판단된다. 어려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때죽나무의 열매를 따서 모아 가지고 개울가 커다란 돌위에 앉아 열매를 짓 찢어서 냇물에 풀어 놓으면 물고기가 하얗게 떠오른다. 그래서 물고기가 떼를 지어 죽는다 하여 떼죽, 때죽나무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 1. 생태적 특성

전국의 표고 100~1,600m 사이의 산복이하 양지에서 자생하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수고 10m까지 자라며 밑에서 많은 줄기가 나와 관목형태를



이루고 가지가 많아 수관폭이 넓게 자라며 지리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도 분포한다. 토심이 깊은 사질양토로서 습기가 다소 있는 곳을 좋아하며 내음성도 약간 있어서 큰나무 아래에서도 잘 견딘다. 추위와 해풍에도 강하나 건조에는 다소 약한편이다. 각종 공해와 병충해에는 강한편이다.

## 2. 형태적 특성

줄기는 흑갈색으로서 세로로 줄이 쪼으며 어린 줄기에서는 수피가 종으로 일어난다. 잎은 어긋나고 좁은 계란모양이며 길이 2~8cm, 넓이 2~4cm이다. 꽃은 양성화로 지름이 1.5~3.5cm로서 5~6월에 백색으로 피며 긴 화경에 달려 아래로 드리워 2~5송이씩 뭉쳐 핀다. 꽃이 지면 7월 경부터 파란열매가 달리는데 열매는 길이 1.2~1.4cm로서 종모양으로 늘어지며 9월에 익는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때죽나무는 도시나 농촌, 동양식이나 서양식 등 정원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식재 가능한 수종이다. 테라스 앞, 현관 앞 등에 심어 줄기, 가지, 꽃, 열매 등을 즐기거나 공원, 유원지 등 조그만 숲을 만드는 구성 재료로도 적격이다. 최근들어

향토수종이라는 이름으로 식재되기 시작하였으나 자연산 채취 이식에 의존하는 경향이었고 점차 조경수로 많이 식재되고 있는 순백색의 꽃과 강한 생명력으로 적응범위가 넓어 개발가치가 매우 높은 수종이다. 소 교목성이나 대부분 자생지에서는 관목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원줄기를 곧게 키우고 맹아지나 결가지를 제거하여 수관을 조절하면 가로수로도 적격이다.

## 4. 번식법

번식은 보통 종자에 의하여 번식하나 삼목으로도 번식이 가능하지만 실용적이지 못하다.


### - 종자번식

10월경 열매를 채취하여 그늘에서 2~3일간 말린 뒤 손으로 껍질과 종자를 분리 정선한다.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살충과 건조방지를 위해 4~5일간 물에 담가두었다가 직파하거나, 젖은 모래와 섞어 저온저장을 하거나 노천매장을 한다.

파종시기가 늦어지거나 종자가 건조하면 대개 2년째 봄에 발아하므로 1년간 저장처리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묘목은 자람이 빠르므로 속음을 일찍 해준다. 곧은 뿌리와 큰 옆뿌리는 잘라 옮겨 심는다.

## 5. 그 밖의 용도

한방에서는 꽃과 잎을 약용으로 사용한다. 꽃은 인후통과 치통에, 잎과 열매는 풍습증에 쓰는데 다량으로 먹으면 목을 자극하고 위장장애를 일으킨다. 종자에는 반건성유가 들어 있어 도료나 윤활유로 사용하고 고급 미용비누를 만드는데도 사용한다.

줄기와 가지는 검고 가는 줄무늬가 아름답고 가공이 쉬우며 목질부분의 색깔이 순 백색이어서 조각재, 또는 작은 동물모양이나 솟대를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 때죽나무 열매